민주 8월17일 전대 가닥…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차기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정청래 연임 도전 속 책임론 확산
공개활동 줄이고 당내 여론 살펴
최고위 선거도 친청계 vs 반청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17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 막이 오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당 복귀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돌아온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는 8월 중에 하되 가장 이른 시기인 8월 17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개최 일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한다. 이에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한 뒤 오는 10일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은 당헌·당규상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 대표 등이 관례상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당 안팎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그동안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5일 의원총회·본회의, 6일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만 오는 12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이번주 후반부터는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 일정 확정 흐름에 맞춰 당 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등 소속 의원들과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고리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정청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 호남 포럼'에서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치 못하다.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언급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정청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도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가 맞붙는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비당권파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이건태 의원의 도전이 점쳐진다. 친청계 중에서는 이성윤 현 최고위원의 연임 도전, 최민희·임오경 의원의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오늘 국힘 원내대표 선거… 張 체제 분수령

〈장동혁 대표〉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 출마
선거 패배 장동혁 대표 책임론 제기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이 선출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장동혁 지도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대표에 나선 이들은 김도읍·성일종·정점식(가나다 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의 광역단체장에서만 이겼다. 당내에선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패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난 9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치 이슈로 몰고 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를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권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불리한 선거 지형에서 이 정도면 선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4곳을 이기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으로 기존보다 3석이 늘어났고, 서울시장을 수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나 소장파들은 장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3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신승리·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 의원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구 지역 선거에서) 장 대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책임론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김도읍, 성일종 원내대표 후보자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중진들도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선 중진이자 서울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는 객관적으로 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를 지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정점식 의원과 김도읍·성일종 의원 역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장 대표는 사퇴 압박을 덜 받게 된다. 반면 비당권파가 원내 사령탑이 될 경우에는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은 강해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李 G7 출국 환송행사에 민주 지도부 불참

"현안 집중 위해 환송 행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통상 환송 행사에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항을 찾지 않았다. 당 핵심 지도부가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배웅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있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돼서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을 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전시 개막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를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부실투표라는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우르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만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이 더 바쁠 때"라며 "국회가 하는 역할이 많을 때다. 알다시피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련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며 "지금 입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이고, 환송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란 인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등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당청간 미묘한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당 인사들은 나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환송행사에 불참한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송행사에 참석한 것도 대비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무총리의 환송행사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8월 실시될 민주당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김 총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재계 총수와 유럽행… 李, 경제외교 행보

〉〉 1면 '李, G7 참석차'서 계속

이 자리에선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EU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통령은 11~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1일에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갖고,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12일 저녁엔 이 대통령 방문 계기로 이뤄지는 한-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소도시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렌체를 방문한다.

14~15일 양일간 이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한다. 14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다.

15일엔 레오 14세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이어 취임 후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효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16일 저녁에는 프랑스측이 준비한 공식만찬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